

신태용의 인니, 스즈키컵 결승행

3명 퇴장 싱가포르에 신승
1·2차전 합계 5-3 승리
인도네시아 사상 첫 우승 도전
신태용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연장 혈투 끝에 3명이 퇴장당한 싱가포르를 잡고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4위 인도네시아는 25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160위 싱가포르와 2020 AFF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전을 거쳐 4-2로 이겼다.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인도네시아는 이로써 1·2차전 합계 5-3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태국의 4강전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29일, 내달 1일 두 차례 대결을 벌인다. '동남아 축구 월드컵' 격인 스즈키컵은 격년제로 열리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열리지 못했다.

2019년 12월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스즈키컵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인도네시아는 마지막으로 결승에 진출했던 2016년 대회를 포함해 스즈키컵에서 준우승만 통산 5차례 기록했다. 역대 4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싱가포르는 2012년 이후 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준결승 탈락으로 고개를 숙였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11분 예즈라 왈리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전반 49분 한국 출신의 귀화 선수 송의영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사딘 술라이만의 프리킥 이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송의영이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동점골을 허용한 인도네시아는 후반 주도권을 내주며 힘겹게 경기를 펼쳤다. 싱가포르는 후반 22분 이르판 판디의 디렉트 퇴장으로 9명이 났으나 오히려 후반 29분 술라이만이 역전 골을 터뜨려 2-1을 만들었다.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고전하던 인도네시아는 후반 42분 에야 프라타마 아르한의 추가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후반 추가 시간 싱가포르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키커로 나선 파리스 랍리가 실축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혈투 끝에 결국 승리는 인도네시아의 몫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연장 전반 1분 싱가포르 사알 아르의 자책골로 리드를 되찾았고, 16분 뒤 에기 마올라나의 췌기포가 나와 두 골 차 승리를 매조했다. 싱가포르는 연장 후반 14분 골키퍼 하산 수니마저 디렉트 퇴장을 당해 8명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신태용 감독은 결승에 진출한 뒤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털어놓았다. 스포츠전문 채널 ESPN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말 그대로 경기 내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면서 "양 팀 모두 그라운드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도 문제를 보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리고 경험이 적다보니 상대가 퇴장당했음에도 담뱃"면서 "경기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을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고 우승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0 AFF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위탄 솔 레이만이 싱가포르의 수비를 뚫고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 내년 4월 순천에서 열린다

25개국 선수 300여명 참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배드민턴 국제대회인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가 내년 순천시에서 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청에

서 2022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 개최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5개국 300여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2022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는 내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8월 전남 여수시

에서 2021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수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불가를 통보해 취소한 바 있다. 1991년부터 개최한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는 메이저급 국제대회로 총상금은 40만달러(약 4억 7500만원)다. /연합뉴스

2024년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영광으로 최종 확정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2024년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26일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영광군을 2024년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영광과 구례군이 이번 대회 유치경쟁에 나섰으나 이사회 투표 결과 32-30으로 영광군이 2표차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제63회 대회는 2024년 4월께 영광군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영광군은 평균 10개 이상의 전국·도·군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체육대회는 2022년 순천, 2023년 완도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선구(맨왼쪽) 함평학다리고 교장과 레슬링팀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수비 뚫고 달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경기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러닝백 체이스 드몬즈(2번)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수비를 뚫고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평학다리고 레슬링 단체전 준우승

김홍영 개인전 금메달 등
문체부장관기 메달 6개 획득

함평학다리고 레슬링팀이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26일 함평학다리고(교장 김선구)에 따르면 레슬링 팀이 최근 강원 양구군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 모두 6개 메달을 탄 학다리고는 서화체고에 이어 단체전 종합 2위에 올랐다. 김홍영(3년)은 개인전 남자 그레코로만형 51kg급 결승에서 박지웅(강원체고)을 9-0, T폴승

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경민(3년)은 그레코로만형 63kg급 결승에서 이윤호(경기체고)에게 T폴패를 당해 은메달에 그쳤다. 윤준민(1년)은 그레코로만형 67kg급, 이승한(2년)은 87kg급, 양경운(2년)은 97kg급에서 3위를 기록했다. 강경은(2년)은 여자부 자유형 57kg급 준결승에서 백승륜(서울체고)에 패해 동메달을 땀다. 학다리고 레슬링팀 박근철 지도자는 "단체전 종합 준우승으로 올시즌을 마무리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 한해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도 학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언리드: 마법의세계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4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7관	세네케틀 매트릭스: 리저렉션
8관	세네케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언리드: 마법의 세계, 연애 빠진 로맨스, 유체이탈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